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2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2. 28.(화), 14:10 ~ 17: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해경, 남효대, 백종오, 위광철, 이상석,
조인숙, 최종덕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방식, 제8조 제척신청 등의 처리,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자문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과반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시·발굴지 정비 | |
| 2 | 「김포 덕포진(사적)」 파수청 복원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3-2차-001)

1. 합천 옥전고분군 시·발굴지 정비

가. 제안사항

-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합천 옥전고분군』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및 2021년 시·발굴조사 실시 후 정비되지 않은 조사구역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자 마련한 설계(안)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합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2번지 일원
 - 지정면적 : 243,916㎡
 - 지정일 : 1988. 7. 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합천 옥전고분군 시·발굴지 정비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지 정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유구보존공사 : 35기(석곽묘 33기, 목곽묘 2기)
 - 발굴지 표토제거 및 성토 : 3,110.7㎡
 - 발굴지 잔디식재 : 3,117.8㎡
 - 자연석 배수로 설치 : 500mm*500mm*31.2m
 - 관람로 잔디보호매트 설치 : 258.2m
 - 목계단 설치 : 23단

○ 시·발굴조사 및 정비 이력

시·발굴조사 및 정비 이력	
1985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1차)
1987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2차)
1989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3차) : 3차 발굴(대형고분 2기)
1989년	합천 옥전고분군 보수 : 2호, 3호분 복원, C형 안내판 설치
1990년	합천 옥전고분군 부지매입
1991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 조사(4차) - 대형봉토분 2기, 주변유구 및 소형석곽분 16기 발굴조사
1991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 조사(5차) - 대형봉토분 2기, 소형석곽분 11기, 토광목곽묘 3기 발굴조사
1992년	합천 옥전고분군 보수 : 봉분정비 5기
1993년	합천 옥전고분군 부지매입
1994년	합천 옥전고분군 보수 : 고분조성, 수목제거, 잔디식재
1995년	합천 옥전고분군 보수 - 진입로 개설(L=85m, B=5m) 및 콘크리트 포장(L=54m, B=5m)
1996년	합천 옥전고분군 보수 : 보호책 설치(L=424.8m) 및 출입문 설치
2009년	합천 옥전고분군 발굴 조사(6차) : M28호분 발굴조사
2009년	합천 옥전고분군 복원 정비공사 : M28호분 봉분정비
2017년	합천 옥전고분군 CCTV 설치공사 : CCTV 4기 설치
2018년	합천 옥전고분군 일원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용역 -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2019년	합천 옥전고분군 시발굴조사를 위한 임업적 방제사업 - 모두베기 및 임업방제
2019년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 시굴조사(12,227㎡) 목곽묘 29기, 석곽묘 25기, 봉토분 2기 확인
2019년	합천 옥전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용역 - 정밀발굴조사(1,282㎡) 목곽묘 12기, 석곽묘 5기 조사
2020년	합천 옥전고분군 사적확대부지 매입 : 부지매입(4,198㎡) 5필지
2020년	합천 옥전고분군 사적구역 식물종 분포 조사용역 - 학술조사(243,916㎡), 식생조사 및 생태환경 분석
2020년	합천 옥전고분군 주변 정비공사 : 보호책 설치(L=424.8m) 철거
2020년	합천 옥전고분군 산22번지 일원 발굴(시굴)조사 용역 - 시굴조사(2,927㎡) 목곽묘 16기, 석곽묘 14기, 옹관묘 1기, 봉토분 1기 확인
2020년	합천 옥전고분군 산22번지 일원 정밀발굴조사 용역 - 발굴조사(1,200㎡) 목곽묘 2기, 석곽묘 35기, 옹관묘 4기 등 42기 조사
2021년	합천 옥전고분군 정비사업 - 발굴지 성토 및 잔디식재, 유구보존공사(8기), 배수로 설치
2022년	합천 옥전고분군 수목정비사업 - 수목제거(145주), 잡목제거(49,200㎡), 운반 등

라. 관계전문가 의견(설계자문)

< 2022. 9. 14. ○○○(사적분과위원,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자문위원) >

- 옥천고분군 산22번지 일원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표현은 원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토한 위에 평면 모습을 나타내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 발굴조사 결과 석곽 벽체의 일부가 소실되었더라도 석곽 4벽면을 모두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호석이 확인된 경우, 호석 표현을 하여 무덤의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중·소형 고분의 봉분 규모와 형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지형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 표현

< 2022. 9. 19.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옥천고분군 시발굴지 정비사업 설계도서에 대한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소형 무덤 유구의 정비방식은 원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토한 위에 자연석으로 경계표시하는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유구정비 상세도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여 경계부처리에 대해 표시할 것
- 소형 무덤 유구 주변부의 정비를 위해 잡목과 표토제거(t=150) 후에 성토다짐(t=300) 및 잔디식재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다만, 소형무덤 유구가 군집된 구간 외의 지역도 잡목제거와 성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잔디매트 깔기로 계획된 접근로 설치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람동선이 소형 무덤 유구와 멀리 떨어진 구간이 있어서 추가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합천 옥전고분군 등 가야 관련 7개 고분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연번	고분의 명칭	소재 지역
1	대성동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2	말이산 고분군	경상남도 합안군
3	옥전 고분군	경상남도 합천군
4	지산동 고분군	경상북도 고령군
5	송학동 고분군	경상남도 고성군
6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전라북도 남원시
7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상남도 창녕군

- 사업(재현)대상 선정
 - '20년 정밀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 42기 중 35기(석곽묘 33기, 목곽묘 2기)를 선정하여 재현
 - 석곽묘 2기는 유구 보존상태 미흡, 옹관묘 4기는 재현의 어려움, 토광묘 1기는 고려묘로서 제외됨
- 유구보존계획
 - 종합정비기본계획(진행중), 관계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가치가 높은 유구를 지상에 재현하는 계획은 지하 유구를 보존하면서 유구의 기본형태(평면)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정비라 판단됨
 - 다만, 계획과 같이 일부 소실된 석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되, 호석, 석곽 등에 사용되는 석재는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석재의 형태 및 크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호석과 석곽 사이 적심석도 표현하여 발굴유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목곽묘에서 목재 하부의 석재는 목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이 필요함
 - 현재의 지형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 계획하는 만큼 단면도에 경사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배수계획
 -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부지 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수로를 석축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인위적인 시설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토사배수로로 정비 하되, 측면부는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식재 및 매트 설치 등을 통해 보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토 및 잔디식재
 - 사업대상부지는 발굴조사 후 20cm정도 복토 후 줄떼를 심어 정비하였고 현재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계획상 표토제거 15cm 및 복토 30cm 후 잔디식재는 이미 상당부분 다져진 지반이므로 표토제거 없이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잔디를 보충식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람계획

- 경사지의 관람객 안전 및 잔디 보호를 위해 잔디매트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설치구간과 연계하여 계획한 것으로 안전성을 담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비교적 경사가 심한 우측 관람로(발굴유구 없는 구간임) 초입부는 일정구간 목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2.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

가. 제안사항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공사 설계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80년 김포 덕포진 내 파수청 발굴조사 이후 보호각을 시설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6년 보호각을 철거하고 복토하여 유구를 보존하고 있음
- 기존 유구를 사용하여 파수청 건물을 복원하기 위한 설계를 수리기술위원회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 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덕포진(사적)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 지정일 : 1981. 9. 25.
 - 그간이력
 - 1980년 : 파수청터 발굴조사, 「덕포진 포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1982년 : 파수청터 보호각 건립
 - 2016년 : 고증 및 복원 학술용역
 - 2019년 : 종합정비계획 수립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공사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자문회의 필수)을 받아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설계를 실시한다.
 - 설계금액 : 303,900천원
 - 사업내용 : 파수청 복원공사 21.21m²
 - 기존 자연석 배수로 해체 후 맹암거 설치
 - 기존 문화재안내판(3개소) 철거 후 신설(1개소)

라. 관계전문가 의견

- < 2022. 11. 23. 문화재위원회 ○○○ 위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위원 >
- 건물의 용도를 고려할 때 화방벽은 보 밑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음

- 살창은 보온을 위해 최소화 함
- 내부는 석렬유구를 고려할 때 벽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 보호각이 있을 때 석축 배수로는 유적과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암거로 처리함이 타당함
- 안내판은 과중하므로 정리가 필요함
- 복원과정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이 타당함
- 지붕은 유물을 검토했을 때 와구토로 처리함이 타당함
- 단청은 가칠 정도가 타당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고증자료 검토>

- 강화 덕포진 “파수청” 건물의 고증자료 및 발굴조사 결과 입지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주변 조망 미치 군사를 지휘하던 장대의 기능보다는 탄환과 불씨를 보관 하던 탄약고로써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고증자료) 덕포진 “파수청”은 「통진부 읍지(1871년)」에서 유일하게 확인되고, 통진부지도(1987년) 등 고지도에는 포청 또는 포사청으로 표기됨
 - (발굴결과) 1980년 발굴조사 결과 화덕, 탄환 등이 발견되어 불씨 및 탄환을 보관·공급하던 건물로 확인됨
 - (입지환경) 건물의 향이 북동방향이고, 전면에 덕포진성(건물 지반으로부터 약 2~2.5미터 높이)이 가리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어려움

<평면 및 입면검토>

-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설계(안) 비교

구 분		발굴조사보고서(1980년)	'16년 복원 학술용역	'22년 실시설계
평면	규모	○ 전면 3칸, 측면 2칸	○ 전면 3칸, 측면 2칸	○ 전면 3칸, 측면 2칸
	내부	○ 화덕 및 내진주 초석 2개	○ 내진주 설치 ○ 판벽으로 실 구획	○ 내진주 설치 ○ 별도 실 구획 없음
입면		○ 전면 3칸 살창 설치 ○ 배면 미제시	○ 전면 3칸 살창 설치 ○ 배면3칸 살창 설치	○ 전면: 협간살창 어칸 화방벽 ○ 배면: 어칸살창 협간 화방벽

- 전면 3칸, 측면 1칸의 초석과 어칸에 화덕 1개소, 내진주 초석 2개소 발견되었 으며, 화덕은 협칸 지반보다 약 120mm 높게 되어있음
- 발굴결과, 전·후면 화방벽 내부에 초석유구 및 초석 지정 형태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경우, 복원건물 전·후면은 기둥 없이 화방벽으로 구성하였을 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복원건물의 탄약고(탄환 및 불씨 보관) 기능을 고려할 경우, 화덕 및 내진부는 탄환보관 장소와 불씨 보관장소를 벽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규모(3량가)를 고려할 경우 내진주가 대량 등 상부하중을 분담하기 위한 구조적 용도보다는 탄환과 불씨를 별도 구획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사료됨
- 내부 벽체는 불씨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경우 판벽보다는 재사벽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복원건물의 내부 형태에 대한 고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와 같이 내진주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외부 벽체 화방벽의 살창 설치 위치는 탄약과 불씨 보관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복원건물 전면은 전체 살창으로 구획하고, 배면은 전체 화방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사항>

- 복원건물의 유구 전체 해체 후 재설치는 표토 제거 후 기초 지정형태 및 지내력 검사 등을 실시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초석 4개 외 전체 신재 반입으로 되어 있는 지대석, 화방석 등은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반입되는 석재는 기존 석재와 유사한 재질과 색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